

「구약논단」 100집 발간을 기념하여 돌아본 한국 구약학의 연구사: 연구 동향, 방법론의 발전, 그리고 미래 과제*

이은우(장신대)

1. 서론

2026년 「구약논단」 100집의 발간은 한국 구약학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1995년 창간된 「구약논단」은 한국구약학회의 대표 학술지로서 한국 구약학 연구의 축적과 발전 과정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학술적 공간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이 학술지에는 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제2성전기 문헌, 히브리어와 본문비평, 고대근동 비교연구, 젠더 연구, 생태신학, 디지털 성서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이는 곧 한국 구약학의 관심사와 방법론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구약논단」은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매체에 머무르지 않았

* 이 논문은 2026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다. 이 학술지는 각 시대의 문제의식과 해석학적 논쟁,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수용, 그리고 세대 간 학문적 계승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기능해 왔다. 따라서 「구약논단」의 연구사를 검토하는 작업은 개별 논문이나 특정 연구 주제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구약학이 어떠한 질문을 제기하였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학문사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¹

본 연구는 「구약논단」 창간호부터 99집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구약학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의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시기의 주요 연구 주제와 논쟁, 성서 범주별 연구 경향, 그리고 역사비평에서 문학비평, 정경비평, 사회과학 비평, 젠더 연구, 생태비평, 디지털 성서학에 이르는 방법론적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연구 대상은 특정 시기나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1집부터 99집까지의 전체 자료를 포괄함으로써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변화와 연속성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금까지 한국 성서학 및 구약학 연구사에 관한 논의는 주로 특정 학자,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대표 학술지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²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구약논단」이라는 하나의 학술지를 통해 한국 구약학의 발전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학문적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과제를 평가하

1 「구약논단」 창간사 및 편집후기, 「구약논단」 제1집 (1995).

2 왕대일,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진단과 전망,” 『신학연구 50년』 (서울: 혜안, 2003), 47-92; 한동구,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1): 연구 방법론과 오경,”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0 (2007), 5-48; 이형원, “Trends in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and Proposals for the Futur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7 (2008), 5-24; 김상래, “한국인 구약학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 분석,” 『구약논단』 39집 (2011), 179-206;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약논단』 23권 1호(통권 63집) (2017), 104-138.

려는 시도이다. 동시에 이는 한국 구약학이 역사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히브리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으며, 세계 성서학 담론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형성해 왔는지를 성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³

2. 성서 범주별 연구사 분석

「구약논단」에 수록된 논문들은 특정 성서 본문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아래 표는 제1집부터 제99집까지의 논문을 성서 범주별로 분류하여 대략적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는 지난 30년간 한국 구약학의 연구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된다.

표 1. 「구약논단」 성서 범주별 연구 분포(1-99집, 추정 집계)⁴

성서 범주	예상 논문 수	비중(대략)	대표 주제
오경	210편	27%	창조, 출애굽, 신명기
역사서	165편	21%	여호수아, 사사기, 왕정사
성문서	140편	18%	시편, 욥기, 전도서
예언서	190편	24%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제2성전기 문헌	45편	6%	쿰란, 외경
언어·본문비평·ANE	35편	4%	히브리어, LXX, 고대근동
합계	785편	100%	

3 Pierre Bourdieu, *Homo Academicu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56-75.

4 본 수치는 연구논문 중심의 예비 집계치이며, 서평·기념논고 포함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구약논단」의 연구사는 오경과 예언서 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준다. 이는 한국 구약학계가 전통적으로 오경 형성사, 신명기 법전, 예언서의 심판과 회복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음을 시사한다. 역사서 연구 역시 꾸준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역사성, 폭력,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반면 제2성전기 문헌과 언어·본문비평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이나, 최근 들어 점차 관심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⁵

1) 오경 연구

「구약논단」 1집부터 99집까지의 연구사를 성서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오경은 한국 구약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영역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오경이 단순히 성경의 첫 다섯 권이라는 문학적·정경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창조, 인간, 구원, 율법, 언약, 거룩, 광야, 공동체 정체성과 같은 구약신학의 핵심 주제들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구약논단」의 전 시기를 통틀어 오경 연구는 가장 안정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창세기와 신명기 연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레위기와 민수기는 상대적으로 연구 수가 적었으나, 최근 들어 거룩·공동체 윤리·광야 공동체·타자 수용 등의 주제로 새롭게 조명되었다.

오경 연구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형성기(1995-

5 위 수치는 「구약논단」 제1-99집 수록 논문을 본 연구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예비 집계치이며, 최종 수치는 세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6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ew York: Harper & Row, 1962), 105-28; Walter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1997), 39-76.

2000)에는 창조, 출애굽, 율법, 자료비평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성장기(2001-2009)에는 편집비평과 문학비평이 확대되었다. 전환기(2010-2018)에는 정체성, 기억, 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확장기(2019-2026)에는 생태, 재난, 난민, 디지털 시대 인간 이해 등 현대적 주제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1) 창세기 연구: 창조, 인간론, 생태학

창세기는 「구약논단」 전체 연구사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오경 본문 가운데 하나였다. 초기에는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사,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인간 타락, 족장 전승 등이 중심 주제였다. 예컨대 「구약논단」 제2집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과 의미를 다룬 논문이 실렸으며, 제14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에 관한 연구가 게재되었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창조 질서라는 고전적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성장기 이후에는 족장 서사, 가족 갈등, 여성 인물,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문학비평이 증가하였다. 제30집은 아브라함 전승, 여성 재해석, 희년서와 제2성전기 아브라함 전통을 다룬 특집으로, 창세기 연구가 역사비평을 넘어 정경적·수용사적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⁸ 김도형은 창세기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 스토리텔링, 반복과 대칭, 독자 경험, 그리고 실제적 적용을 강조하면서, 본문이 공동체 정체성과 의미 형성에 수행하는 역할을 해석하는 논문들을 게재하였다.⁹

7 남대국, “창세기 1:1의 번역과 의미,” 「구약논단」 제2집(1996), 7-23; 서명수, “아케다 이야기(창 22:1-19)의 재해석,” 「구약논단」 제14집(2003), 7-25.

8 「구약논단」 제30집(2008)과 31집(2009)에는 창세기와 아브라함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9 김도형,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의 문학적 구조와 스토리텔링,” 「구약논단」 25권 4호(통권 74집) (2019), 221-252; 김도형, “창세기 내러티브 읽기: 익숙함과

확장기에 들어와 창세기 연구는 생태학적 전환을 경험하였다. 제 94집에는 “창조 기사의 땅 이야기: 불의에 저항하며 황폐해 가는 땅”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창세기 1-4장의 땅(*ādāmā*)을 단순 배경이 아닌 윤리적 행위 주체로 읽었다.¹⁰ 이는 한국 구약학이 기후 위기 시대에 창조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2) 출애굽기 연구: 해방, 정체성, 재난

출애굽기 연구는 「구약논단」의 연구사 전반에서 꾸준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초기 연구들은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 해방과 구원 신학, 시내산 언약, 율법 수여의 의미 등 전통적 주제들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출애굽기를 단순한 서사 문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원과 신앙 정체성을 형성한 핵심 텍스트로 이해해 온 한국 구약학계의 관심을 보여 준다.

이후 연구는 출애굽 전승이 후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재해석되었는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이은우는 구약의 절기 전승을 분석하면서, 출애굽 기억이 광야 시대, 왕정 시대, 포로기를 거치며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점진적으로 재구성되었다고 논하였다.¹¹ 이는 출애굽 전승을 단회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마다 새롭게 의미화 되는 기억 전승으로 이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확장기에 이르러 출애굽기 연구는 재난, 생존, 공동체 회복이라는 현대적 문제의식과도 연결되었다. 김영혜는 열 재앙 본문을 단순한 기

낮습의 주제, 「구약논단」 28권 2호(통권 84집) (2022), 43-76; 김도형, “구약 내러티브 비평과 본문의 실제적 적용: 창세기 47:27-50:26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379-408.

10 임효명, “창조 기사의 땅 이야기: 불의에 저항하며 황폐해 가는 땅, 「구약논단」 30권 4호(통권 94집) (2024), 364-395.

11 이은우, “구약 축전의 발전 과정 연구, 「구약논단」 17권 1호(통권 39집) (2011), 155-178.

적 이야기로 보지 않고, 제국 질서에 대한 비판과 억압 체제의 전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서사로 재해석하였다.¹² 이는 출애굽기의 재난 서사가 정치신학적·사회윤리적 읽기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팬데믹 이후에는 재난 상황 속 공동체 윤리와 생존 신학의 관점에서 출애굽기 읽기가 심화되었다. 동시에 본문 형성과 전승사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었다. 예컨대 이은우는 홍해 도하 사건(출 13:17-14:31)에 대한 본문 분석을 통해 오경비평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출애굽 전승이 여전히 문헌비평과 편집비평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¹³

이처럼 「구약논단」에 나타난 출애굽기 연구는 해방과 구원의 고전적 주제에서 출발하여, 기억과 정체성, 제국 비판, 재난과 회복, 그리고 본문 형성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해석 지평을 확장해 왔다.

(3) 레위기 연구: 거룩과 공동체 윤리

레위기 연구는 「구약논단」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레위기를 단순한 제의 규정집으로 이해하기보다, 공동체 정체성, 정결과 경계 설정, 공동체 윤리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구약학이 레위기를 현대 사회와 공동체 문제에 연결하여 해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김진명은 레위기 본문에 대한 단순 주석을 넘어 정경적 전개(canonical unfolding)의 관점에서 레위기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특징을 지닌다.¹⁴ 88집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12 김영혜,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재고,”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22), 72-101.

13 이은우, “오경 문서비평의 새로운 방향 찾기: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9권 1호(통권 87집) (2023), 244-266.

14 김진명,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의 의

관련하여 레위기 11-15장의 정결법을 재조명한 김선종의 연구가 수록되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레위기의 정결 규정을 단순한 종교적 금기 체계로 보지 않고, 감염과 공동체 보호의 문제 속에서 이해하면서, 정결법이 공동체 생존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해석하였다.¹⁵ 이는 팬데믹 이후 한국 구약학이 레위기를 현대적 재난 상황과 공동체 윤리의 문제 속에서 새롭게 읽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민수기 연구: 광야와 공동체 형성

민수기는 오랫동안 「구약논단」 연구사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본문이었으나, 후기 연구사에 이르러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민수기를 단순한 광야 전승의 기록으로 보기보다, 공동체의 포용성, 외국인의 참여, 공동체 경계의 확장 문제와 연결하여 읽고자 하였다.¹⁶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구약학이 민수기를 현대 공동체 정체성과 사회윤리 문제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5) 신명기 연구: 율법, 중앙성소, 편집사

신명기는 「구약논단」 오경 연구 가운데 가장 강한 비중을 차지한 본문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한국 구약학계에서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 연구 전통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¹⁷

미 해석, 「구약논단」 20권 1호(통권 51집) (2014), 96-121.

15 김선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교회: 레위기의 정결법(레11-15)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9권 1호(통권 87집) (2023), 301-328.

16 이효림,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와 타국인의 제사 참여에 관한 전통사적 연구,” 「구약논단」 29권 3호(통권 89집) (2023), 249-285.

17 정석규, “신명기 역사 연구와 그 전망,” 「구약논단」 제15집(2003), 119-145; 이은우, “소

초기 연구는 율법, 언약, 순종과 축복, 중앙성소 사상에 집중되었다. 6집에는 신명기 율법 정신을 다룬 논문이 실렸고, 29집에는 쉼마와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을 비교한 연구가 게재되었다.¹⁸

성장기 이후에는 편집비평이 크게 발전하였다. 88집에는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신명기 본문 안의 기본층, 요시야 시대 편집층, 포로기 편집층, 페르시아기 후기 첨가층을 구분하는 연구가 게재되었고,¹⁹ 96집에는 신명기 34장을 중심으로 오경의 완성과 그 신학을 탐구하는 논문이 실렸다.²⁰ 최근 연구는 신명기를 단순 율법서가 아니라 공동체 기억, 교육 담론, 경계 형성, 포스트모던 사회의 공공윤리 텍스트로 읽고 있다.²¹

2) 역사서 연구

「구약논단」 제1집부터 제99집까지의 연구사를 성서 범주별로 검토할 때, 역사서(Historical Books) 연구는 오경과 예언서 연구에 이어 한국 구약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 「구약논단」의 실제 연구 분포를 고려할 때 특히 여호수아-열왕기 및 역대기 문헌군이 중심을 이루었다.

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 67-86.

- 18 박선진, “신명기의 생축 도살 규정에 관한 전승사적 연구,” 「구약논단」 제6집(1999), 27-52; 윤영준, “쉼마(신 6:4-5)와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 31-46.
- 19 이은우, “신명기 형성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논의: 신명기 4장 1절-49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9권 2호(통권 88집) (2023), 136-162.
- 20 민경구, “오경의 완성과 그 신학: 신명기 34장에 나타난 모세의 죽음과 토라의 권위,”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323-353.
- 21 기민석, “가부장적 권위와 공동체의 견제: 신명기 21:18-21의 사회사적 이해,”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346-378.

(1) 여호수아 연구: 정복, 헤렘, 본문비평

여호수아서는 「구약논단」 역사서 연구 가운데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아 온 본문이다. 초기 연구는 본문비평,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성, 신명기 역사서 내 위치 등에 집중되었다.²²

성장기 이후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복과 헤렘(*hērem*) 문제였다.²³ 여호수아 본문의 형성사와 전쟁 서사를 문자적 정복 기사로 볼 것인지, 후대 공동체의 신학적 기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²⁴ 확장기에는 본문비평이 두드러지게 부상하였다. 98집에는 이은우의 “여호수아 5장 할례, 유월절, 만나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이 게재되었고, 이는 마소라 본문(MT), 칠십인역(LXX), 편집 흔적 사이의 긴장을 분석하였다.²⁵ 또한 99집에는 여호수아 22장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의 정당성, 정경적 기억, 공동체 갈등을 다룬 논문이 수록되어, 여호수아 연구가 단순 정복 담론을 넘어 공동체 해석학으로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²⁶

22 이은우, “여호수아 3장 본문의 역사 연구: 마틴 노트와 로버트 폴진 이론의 비판적 고찰,” 「구약논단」 13권 4호(통권 26집) (2007), 30-52;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 만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4호(통권 46집) (2012), 72-95.

23 방기민, “회복의 임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 1호(통권 79집) (2021), 61-96;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27권 3호(통권 81집) (2021), 131-154.

24 이은우, “기브온 족속 이야기의 형성사 연구(수 9:1-27),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6집) (2022), 246-270; 최종원, “여호수아 24장 1-13절의 전승사와 육경의 구성사적 접근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29권 4호(통권 90집) (2023), 170-200.

25 이은우, “할례, 유월절, 만나에 관한 해석학적 논쟁: 사본 간의 해석학적 차이인가? 편집사의 흔적인가?,”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269-310.

26 이은우, “여호수아 22장의 형성사, 정경적 기억, 예배공동체의 정당성 논쟁,” 「구약논단」 32권 1호(통권 99집) (2026), 334-367.

(2) 사사기 연구: 폭력, 젠더, 정치 논쟁

사사기 연구는 「구약논단」 후기 연구사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사사기 연구는 「구약논단」에서 폭력, 정치 질서, 젠더, 수사학적 읽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론과 연결되며 점차 확장되어 왔다. 80집에 실린 강후구의 연구는 사사기 1장 1-2절이 사사기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종 단계에서 형성된 본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사사기의 구조와 편집 의도를 주석적으로 조명하였다.²⁷

또한 90집과 93집에는 사사기 19-21장을 폭력과 정치 질서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연구들이 수록되었다. 정대준은 사사기 19-21장을 하나의 통합된 폭력 서사로 읽었으며,²⁸ 정미혜는 동일한 본문을 “숨겨진 정치 논쟁”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건이 단순한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왕정 수립 이전 정치 질서 재편에 관한 논쟁을 반영한다고 보았다.²⁹

이와 함께 사사기 연구는 문학비평과 수사비평의 방법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양인철은 87집에서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사사기 4-5장의 드보라 이야기를 분석하였고,³⁰ 98집에서는 삼손 이야기(삿 13-16장)를 수사비평적으로 읽어 내었다.³¹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구약학이 사사기를 폭력, 권력, 젠더, 정치 질서의 문

27 강후구,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7권 2호(통권 80집) (2021), 132-168.

28 정대준, “사사기 19-21장의 폭력 사건 읽기,” 「구약논단」 29권 4호(통권 90집) (2023), 102-132.

29 정미혜, “사사기 19-21장에 나타난 숨겨진 정치적 논쟁,” 「구약논단」 30권 3호(통권 93집) (2024), 240-275.

30 양인철,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 이론(Dialogism)에 기반한 사사기 4-5장 분석,” 「구약논단」 29권 1호(통권 87집) (2023), 127-151.

31 양인철, “삼손 이야기(삿 13-16장)의 수사비평적 읽기,”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487-517.

제 속에서 비판적으로 읽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사무엘서 연구: 왕권과 다윗 서사

사무엘서 연구는 주로 왕권과 다윗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성장기에는 사무엘상 15장을 문헌비평적으로 분석하여 형성사를 연구하는 논문이 게재되었다.³² 이후에는 다윗 이야기를 문학적·정치신학적으로 읽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35집에는 사무엘서와 관련된 논문이 세 편 실렸는데 이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역사 읽기를 넘어, 문학적·신학적·비판적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 준다.³³ 39집과 46집에 게재된 논문은 사무엘서 연구가 단순한 역사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적 긴장 구조, 인물 해석, 왕권 신학, 그리고 신학적 메시지에 대한 재독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³⁴ 85집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재검토하는 논문이 실렸다.³⁵

권력과 성, 가족 갈등 문제도 다루어졌는데 73집에는 권력과 성폭력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고,³⁶ 96집에는 다윗의 열 명 후궁과 다말 이야

32 원진희, “사무엘상 15장의 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 47-66.

33 구자용, “삼하 11장-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구약논단』 16권 1호(통권 35집) (2010), 119-140; 김재구,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 16권 1호(통권 35집) (2010), 74-97; 유연희, “아비가일의 남자들: 사무엘상 25장 다시 읽기,” 『구약논단』 16권 1호(통권 35집) (2010), 98-118.

34 김재구,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사건(삼상 17:55-58)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 『구약논단』 17권 1호(통권 39집) (2011), 59-82; 임효명,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구약논단』 18권 4호(통권 46집) (2012), 38-71.

35 하경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22), 304-338.

36 이은애,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5권 3호(통권 73집) (2019), 217-245.

기의 상호텍스트성을 다룬 논문이 실렸으며, 이는 왕권 서사가 여성 희생과 권력 구조 속에서 읽혀야 함을 제시하였다.³⁷

사무엘서 연구는 한국 구약학이 왕권을 이상화하기보다, 권력의 양면성과 지도력의 윤리를 성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

(4) 열왕기 연구: 개혁과 멸망 신학

열왕기 연구의 중심 주제는 요시아 개혁, 므낫세의 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해석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79집에는 열왕기하 23장 13절의 역사를 연구하는 논문이 실렸고,³⁸ 97집에는 열왕기하 21장의 므낫세 죄 전승을 문헌비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수록되었다.³⁹ 이러한 논문들은 열왕기가 단순한 정치 연대기가 아니라, 언약 불순종과 심판이라는 신학적 역사 해석서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개혁 군주 요시아의 이상화 역시 후기 편집의 산물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5) 역대기 연구: 포로 후 공동체 정체성

전통적으로 역대기는 열왕기의 반복 요약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구약논단」의 연구들은 이를 포로 이후 공동체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신학 문헌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89집에는 민경구의 연구가 수록되어 므낫세와 요시아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를 재해석하였으며,⁴⁰ 96집에는

37 박유미, “다윗의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 구성과 다말 내러티브와의 상호 본문적 읽기,”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158-192.

38 이은우, “열왕기하 23장 13절의 역사 연구,” 「구약논단」 27권 1호(통권 79집) (2021), 192-213.

39 이상원, “므낫세의 죄: 열왕기하 21장 1-18절의 문헌비평적 읽기,”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311-341.

40 민경구, “므낫세와 요시아의 평가를 통해서 보는 역대기,” 「구약논단」 29권 3호(통권 89집) (2023), 81-108.

포로 후 공동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문제를 통해 역대기의 배경과 신학을 분석한 구본삼의 논문이 실렸다.⁴¹ 이러한 연구들은 역대기가 단순한 왕정사 반복이 아니라, 포로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기억 문헌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성전, 레위인, 다윗 왕조 이상, 예배 질서 등이 공동체 재건의 핵심 요소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 구약학이 “실패한 역사”보다 “재구성된 공동체”의 서사에 점차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성문서 연구

「구약논단」 제1집부터 제99집까지의 연구사를 성서 범주별로 분석할 때, 성문서(Ketuvim, Writings) 연구는 한국 구약학의 지적 성숙과 해석학적 확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오경과 역사서 연구가 주로 기원, 역사, 제도, 공동체 형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성문서 연구는 인간 내면, 예배, 고난, 지혜, 사랑, 죽음, 삶의 의미 등 보다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구약논단」 연구사에서 성문서 연구는 성장기(2001-200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본 절에서는 성문서 가운데 「구약논단」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된 다섯 영역, 곧 시편, 율기, 잠언, 전도서, 아가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시편 연구: 공동체, 고난, 편집 구조

시편 연구는 「구약논단」 성문서 연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었다. 초기 연구는 개별 시편 주석, 탄원시와 찬양시의 양식

41 구본삼, “역대기 이해를 위한 배경으로서 포로 후 공동체가 직면한 연속성과 불연속성 논의,”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96집) (2025), 19-55.

분석, 시온 신학, 메시아 시편 등에 집중하였다. 이후에는 시편을 단순한 개별 시의 모음집이 아니라 편집된 공동체 신앙 문헌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32집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왕대일은 시내산과 시온산의 관계를 통해 시편 신학을 조명하였고,⁴² 유윤중은 시편 연구의 최근 동향을 정리하였다.⁴³ 또한 김창대는 시편 46편의 시온 신학을 주변 맥락 속에서 분석하였으며,⁴⁴ 김진규는 시편 89편을 통해 다윗 언약과 왕권 신학 문제를 재검토하였고,⁴⁵ 기민석은 시편 82편에서 우가릿의 영향을 찾았다.⁴⁶

최근 시편 연구는 고난과 공동체 회복의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97집에 수록된 김아윤의 연구는 시편 88편의 탄식을 현대 한국 교회의 상처와 연결하여 해석하였으며,⁴⁷ 89집의 이일레 논문은 시편 22편의 “가난한 자” 전통을 종말론적 희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⁴⁸ 또한 98집에 실린 변병욱의 연구는 시편 91편의 “모세/다윗 야누스 구조”를 분석하면서, 시편을 공동체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신학적 텍스트로 읽어 내었다.⁴⁹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구약학의 시편 연구가 개인 경

42 왕대일, “시편의 신학: 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15권 2호(통권 32집) (2009), 10-29.

43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15권 2호(통권 32집) (2009), 30-62.

44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15권 2호 (통권 32집) (2009), 63-82.

45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15권 2호 (통권 32집) (2009), 83-110.

46 기민석, “시 82편: 우가릿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15권 2호 (통권 32집) (2009), 111-130.

47 김아윤, “응답 없는 탄식의 기도: 시편 88편의 주석적 연구와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적 적용,”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54-88.

48 이일레,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의 종말론적 희망,” 「구약논단」 29권 3호(통권 89집) (2023), 216-248.

49 변병욱, “야누스로서의 시편 91편: 모세의 시인이자 다윗의 시인이자,” 「구약논단」 31권 4호 (통권 98집) (2025), 195-230.

건을 넘어 공동체 기억, 회복, 정치·신학적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욱기 연구: 악, 고난, 신정론

욕기 연구는 「구약논단」의 성문서 연구 가운데서도 가장 철학적·신학적 깊이가 두드러진 분야였다. 초기 연구들은 의인의 고난, 사탄의 역할,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전통적 보응신학에 대한 비판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였다. 이후 욱기 연구는 인간 존재와 하나님 이해, 신정론,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보다 다층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58집에 실린 하경택의 “욕기 연구사”는 2000년대 이후 욱기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욱기 연구가 전통적인 신정론 논의를 넘어 문학 비평, 존재론적 해석, 공동체적 읽기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⁵⁰ 또한 강철구는 45집에서 욱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욱기의 하나님 이해를 분석하였으며,⁵¹ 구자용은 92집에서 욱기 1장과 19장을 비교하면서 “까닭 없는 경외”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탄의 질문과 욱의 응답을 신학적으로 재조명하였다.⁵²

최근 연구들은 욱기의 악과 혼돈의 상징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였다. 96집에 수록된 연구는 욱기 40-41장의 베혜못과 리위야단 모티프를 인간 존재와 우주 질서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⁵³ 김영

50 하경택, “욕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권 4호(통권 58집) (2015), 264-301.

51 강철구, “욕의 하나님 이해: 욱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3권 1호(통권 45집) (2017), 139-164.

52 구자용, “‘까닭 없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사탄의 질문과 욱의 응답: 욱기 1:9ff와 19:6-20, 25-27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30권 2호(통권 92집) (2024), 7-43.

53 이정학, “구약성서의 전통적 거대동물 모티프를 통한 인간 이해: 욱기 40-41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222-255.

호는 97집에서 욱기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의 역사적 위기 속에서 읽어 내면서 욱기의 기록 목적을 새롭게 해석하였다.⁵⁴ 또한 김준은 95집에서 ChatGPT를 활용한 욱기 42장 6절의 해석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AI와 구약해석의 접점을 탐구하였다.⁵⁵ 이러한 연구들은 욱기가 여전히 현대 철학, 기술, 공동체 위기 속 인간 존재를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텍스트로 읽히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잠언 연구: 지혜, 윤리, 창조

잠언 연구는 「구약논단」의 성문서 연구 가운데서도 지혜신학과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분야이다. 초기 연구들은 지혜문학의 연구 방법론, 지혜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사회윤리 문제에 주목하였다. 안근조는 41집에서 지혜문학 연구 방법론을 정리하면서 잠언 연구의 학문적 방향을 제시하였고,⁵⁶ 한동구는 잠언의 지혜신학 속에 반영된 “공정 사회” 이념을 분석함으로써 잠언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읽어 내었다.⁵⁷ 또한 안근조는 73집에서 잠언 1-9장의 “낮선 여인”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와 율법의 관계를 탐구하였다.⁵⁸

이후 잠언 연구는 여성 지혜와 창조신학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윤희은 75집에서 잠언 8장 22-31절의 지혜와 창조의 역동성을 분석하면

54 김영호, “욕기는 왜 쓰였는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 사건’을 배경으로,”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89-126.

55 김준, “ChatGPT를 활용한 구약성경 연구의 가능성: 욱기 42:6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1호(통권 95집) (2025), 19-50.

56 안근조, “지혜문학 연구의 제방법론,” 「구약논단」 18권 1호(통권 43집) (2012), 34-59.

57 한동구, “잠언의 지혜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 이념,’” 「구약논단」 17권 3호(통권 41집) (2011), 12-33.

58 안근조, “잠언의 낮선 여자 경계를 통해서 본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논단」 25권 3호(통권 73집) (2019), 74-101.

서, 지혜를 창조 질서와 연결된 존재로 이해하였다.⁵⁹ 안근조는 79집에서 의인화된 지혜 여인의 수사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를 연구하였으며,⁶⁰ 김선영은 91집에서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덕경의 여성적 “도(道)”를 비교함으로써 동서양 지혜 전통의 대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⁶¹

최근 연구들은 잠언을 단순한 개인 윤리 교육서가 아니라 공동체 질서와 사회윤리, 그리고 창조 질서를 성찰하는 신학적 문헌으로 읽고 있다. 조용현은 74집에서 잠언에 나타난 “부자”(ʿāšir)의 역할을 도덕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⁶² 박지은은 47집에서 잠언과 아가서의 여성 읽기를 통해 여성 이분법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⁶³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구약학의 잠언 연구가 지혜, 젠더, 사회윤리, 창조 신학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전도서 연구: 허무, 죽음, 그리고 AI 시대의 삶의 의미

전도서 연구는 「구약논단」 후기 연구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전도서가 다루는 허무(헤벨), 죽음, 노동, 시간, 인간 한계의 문제가 현대 사회의 실존적 위기와 깊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들은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 죽음의 문제, 그리고 코헬렛의 신학적 메시지에 주목하였다. 차준희는 42집과 44집에서 전도서

59 윤희, “잠언 8:22-31에 나타난 지혜와 창조의 역학적 관계,” 「구약논단」 26권 1호(통권 75집) (2020), 93-119.

60 안근조, “잠언의 의인화된 지혜여성: 그 수사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27권 1호(통권 79집) (2021), 131-165.

61 김선영, “구약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덕경의 ‘도(道)’의 여성성 비교,” 「구약논단」 30권 1호(통권 91집) (2024), 9-45.

62 조용현, “도덕적 행위자로 기능하는 잠언의 아쉬르/부자,” 「구약논단」 25권 4호(통권 74집) (2019), 108-135.

63 박지은, “이상한 여자를 찾아서: 아가와 잠언의 여성읽기를 통한 이원론적 여성관의 재조명,” 「구약논단」 19권 1호(통권 47집) (2013), 157-182.

5장과 7장을 중심으로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신학적 메시지를 분석하였고,⁶⁴ 배정훈은 44집에서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 지혜” 개념을 통해 코헬렛의 지혜 이해를 재조명하였다.⁶⁵ 또한 구자용은 45집에서 죽음(Memento Mori)을 전도서 이해의 핵심 주제로 해석하였다.⁶⁶ 이후 연구들은 전도서를 인간 존재와 사회 현실의 문제와 연결하여 읽기 시작하였다. 안근조는 57집에서 헬레니즘 시대 지혜의 진화를 전도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⁶⁷ 김홍현은 90집에서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변호를 통해 전도서의 긴장 구조를 조명하였다.⁶⁸

최근 전도서 연구는 현대 기술 문명과 인간 존재의 위기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윤형은 97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의 의미를 전도서의 관점에서 해석하였고,⁶⁹ 또한 이은애는 94집에서 헤벨과 죽음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전도서의 실존적 메시지를 새롭게 조명하였다.⁷⁰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구약학의 전도서 연구가 단순한 허무주의 해석을 넘어, 현대 기술 사회 속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 64 차준희, “전도서 7장에 대한 전통 지혜 비판,” 『구약논단』 17권 4호(통권 44집) (2011); 차준희, “전도서 5장에 대한 신학적 읽기: 주석과 메시지,” 『구약논단』 16권 2호(통권 42집) (2010).
- 65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 지혜,” 『구약논단』 17권 4호(통권 42집) (2011), 10-32.
- 66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18권 1호(통권 43집) (2012), 82-104.
- 67 안근조, “헬레니즘시대의 지혜의 변천: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권 3호(통권 57집) (2015), 99-124.
- 68 김홍현, “전도서에서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 두 개의 열쇠어와 전도서 9장 7-10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9권 4호(통권 90집) (2023), 280-308.
- 69 윤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의 의미: 전도서의 관점에서,”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158-186.
- 70 이은애, “헤벨(hebel)과 죽음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성,” 『구약논단』 30권 4호(통권 94집) (2024), 282-310.

(5) 아가 연구: 사랑, 몸, 이미지, 해석학

아가 연구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수 분야에 속하였으나, 최근 「구약논단」에서는 가장 창의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연구 영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전통적인 알레고리 해석을 넘어 사랑의 시학, 몸의 언어, 젠더 문제, 이미지 상징, 그리고 디지털 해석학으로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초기 연구들은 여성 읽기와 몸의 이미지에 주목하였다. 49집에서는 아가에 나타난 몸 이미지를 “타자화된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전환되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⁷¹ 또한 이유미는 52집에서 “아가의 반전 신학”을 제시하면서, 아가가 기존 질서와 규범을 전복하는 사랑의 신학을 담고 있음을 논의하였다.⁷² 최근 연구들은 언어학적·도상학적 방법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유미는 97집에서 프레임 의미론(frame semantics)을 활용하여 아가의 사랑 언어를 분석하면서, 사랑의 표현이 단순한 감정 묘사가 아니라 관계와 인식 구조를 형성하는 언어 체계임을 논의하였다.⁷³ 또한 김예슬은 98집에서 아가 6장 11-12절을 도상학적 방법론으로 읽으면서, 고대 근동의 시각 자료와 비교하여 본문의 상징 세계를 재해석하였다.⁷⁴

이와 함께 「구약논단」의 아가 연구는 디지털 해석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유미는 84집에서 “비블리카버스(Biblicaverse)” 구축 가능성

71 박지은, “타자화된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아가의 몸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19권 3호(통권 49집) (2013), 152-177.

72 이유미, “아가의 반전(反轉)의 신학,” 「구약논단」 20권 2호(통권 52집) (2014), 156-185.

73 이유미, “아가의 사랑 프레임 재구성: 프레임 의미론을 통한 은유적 인식 전환,”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187-214.

74 김예슬, “도상학적 방법론을 통한 구약성서 해석의 예: 아가 6장 11-12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91-123.

을 제안하면서, 가상현실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가를 체험적으로 읽는 새로운 해석 모델을 제시하였다.⁷⁵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구약학의 아가 연구가 금욕주의적 읽기를 넘어 인간 사랑, 몸, 감각, 상상력, 이미지, 그리고 디지털 공간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예언서 연구

「구약논단」 1집부터 99집까지의 연구를 성서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예언서 연구는 오경 연구와 더불어 한국 구약학의 가장 중심적인 축을 형성해 왔다. 예언서는 단순한 미래 예언 문헌이 아니라 역사 현실에 대한 비판, 공동체 정체성의 재구성, 심판과 회복의 신학, 야훼의 주권, 열방 질서, 그리고 종말론적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후기에는 소예언서와 다니엘 연구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구약학이 예언서를 단순한 설교 자료가 아니라 현대 사회와 세계 질서를 성찰하는 핵심 텍스트로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1) 이사야 연구: 메시아, 열방, 그리고 영(rûah)

이사야서는 「구약논단」의 예언서 연구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폭넓게 다루어진 본문이었다. 초기 연구들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사 6장),

75 이유미, “유용한 해석적 도구인 ‘비블리카버스’(biblicaverse) 구축을 위한 제언-ID drroma의 아가 연구 가상체험기” 「구약논단」 28권 2호(통권 84집) (2022), 324-354.

임마누엘 전승, 메시아 사상, 시온 신학 등에 집중하였다. 특히 25집은 사실상 “이사야 6장 특집”이라 할 만큼 다양한 연구가 집중되었는데, 이사야 6장의 소명 구조, 성전 환상, hékāl(헤칼)의 의미, maṣṣēbā(마체바)의 기능, 이사야서 전체 안에서의 신학적 위치 등을 다룬 논문들이 연속적으로 발표되었다.⁷⁶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구약학에서 특정 본문을 중심으로 편집비평, 정경비평, 신학적 읽기를 통합적으로 시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제2이사야 연구 역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오택현은 5집과 7집에서 제2이사야의 유일신 신학과 야훼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mišpāt(미쉬파트) 개념을 연구하였으며,⁷⁷ 박종수는 고레스 찬가(사 44:24-45:8)를 통해 포로기 회복 신학을 분석하였다.⁷⁸ 최근에는 최철규가 96집에서 제2이사야와 고레스 실린더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이사야서와 고대 근동 제국 담론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였다.⁷⁹ 열방(gôyim)과 보편주의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김래용은 80집에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야훼의 주권과 열방 문제를 연구하였으며,⁸⁰ 박경철은 이사야 56장 1-8절을 중심으로 포로 이후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고자의

-
- 76 김회권, “이사야의 하나님의 결정 신학: 이사야 6장 주석 연구,” 『구약논단』 13권 3호(통권 25집) (2007), 10-29; 김재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의 신학적인 기능,” 『구약논단』 13권 3호(통권 25집) (2007), 70-88; 김상래, “이사야 6장의 ‘이상의 현장’(visionary locale)은 어디인가?: 1절의 헤칼/성전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3권 3호(통권 25집) (2007), 30-47; 왕대일, “이사야 6장을 통해 세계 성서해석의 조류를 한눈에,” 『구약논단』 13권 3호(통권 25집) (2007), 6-8.
- 77 오택현, “제2이사야에 반영된 신명기 역사의 유일신 신학,” 『구약논단』 제5집 (1998), 79-96; 오택현, “제2이사야 ‘야훼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미쉬파트 연구,” 『구약논단』 제7집 (1999), 47-62.
- 78 박종수, “고레스 찬가(사 44:24-45:8),” 『구약논단』 제2집 (1996), 80-104.
- 79 최철규, “제2이사야와 고레스 실린더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256-278.
- 80 김래용, “이사야서에 나타난 야훼의 주권과 고이,” 『구약논단』 27권 2호(통권 80집) (2021), 10-45.

위치를 논의하였다.⁸¹ 또한 정중호는 이사야 19장 16-25절을 통해 예언서와 타종교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이사야서의 보편주의 신학을 새롭게 읽어 내었다.⁸²

최근에는 영(rúah) 신학과 공동체 회복 문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김주현은 99집에서 이사야 본문(11:2, 42:1, 59:21, 61:1)에 나타난 영 신학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사야의 영이 지도자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으로 이해된다고 논의하였다.⁸³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구약학의 이사야 연구가 메시아, 열방, 정의, 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예레미야 연구: 트라우마, 기억, 그리고 편집비평

예레미야서는 「구약논단」의 예언서 연구 가운데서도 트라우마 연구와 편집비평이 가장 활발하게 결합된 분야였다. 초기 연구들은 역사적 예레미야, 바빌로니아 침공, 새 언약(렘 31장), 그리고 심판과 회복 구조에 주목하였다. 특히 차준희의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와 미가 전승”은 예레미야 전승과 이전 예언 전통의 연속성을 탐구하였으며,⁸⁴ 김필희는 예레미야 1장 4-10절의 소명 기사를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언자 정체성과 편집 문제를 논의하였다.⁸⁵ 또한 민경구는 예레미야 31장 31

81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사 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6권 4호(통권 38집) (2010), 114-136.

82 정중호, “예언서와 타 종교: 이사야 19장 16-25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6권 2호(36집) (2010), 53-70.

83 김주현, “지도자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이사야서의 영 신학: 11:2; 42:1, 5; 59:21; 61:1의 통합적 고찰,” 「구약논단」 32권 1호(통권 99집) (2026), 118-148.

84 차준희,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와 미가 전승,” 「구약논단」 1집 (1995), 205-232.

85 김필희, “예레미야 소명 기사(렘 1:4-10)의 역사적 이해,” 「구약논단」 18집 (2005), 86-

절-34절과 신명기 31장 9-13절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과 토라 전승을 둘러싼 포로기 이후 공동체 논쟁을 연구하였다.⁸⁶

이후 연구들은 예레미야서의 편집 구조와 역사 재구성 문제에 집중하였다. 장성길은 예레미야 30-33장의 연대 구조를 분석하였고,⁸⁷ 김래용은 예레미야 25-44장을 3단계 구성으로 읽으면서 심판과 회복의 편집 구조를 탐구하였다.⁸⁸ 또한 김재구는 “여호야김 4년의 수수께끼” 연구를 통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시간 구성과 편집 문제를 논의하였다.⁸⁹ 이러한 연구들은 예레미야서가 단순한 예언 모음집이 아니라 장기간의 편집과 재구성을 거친 신학적 역사 문헌임을 보여 준다.

전환기 이후에는 트라우마와 공동체 기억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양인철은 「구약논단」 86집에서 예레미야 16장을 트라우마 관점에서 읽으면서 국가 붕괴와 공동체 상실 경험을 해석하였고,⁹⁰ 김선중은 예레미야와 멜랑콜리아를 연결하여 슬픔과 상실의 형이상학을 탐구하였다.⁹¹ 또한 정미혜는 예레미야 37-39장의 시드기야 정치 세력을 분석하면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정치 권력 구조와 내부 갈등을 조명

104.

- 86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포로기 이후 신학,” 「구약논단」 20권 3호(통권 53집) (2014), 256-279.
- 87 장성길, “예레미야 30-33장에 나타난 결속 구조 분석,” 「구약논단」 13권 4호(통권 26집) (2007), 92-110.
- 88 김래용, “예레미야 25-44장의 메시지: 3단계 구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22), 10-42.
- 89 김재구, “예레미야서의 여호야김 4년의 수수께끼,” 「구약논단」 22권 3호(통권 61집) (2016), 12-40.
- 90 양인철, “트라우마 관점에서 본 예레미야 16장 해석,” 「구약논단」 29권 2호(통권 86집) (2023), 104-135.
- 91 김선중, “슬픔의 형이상학: 예레미야와 멜랑콜리아,” 「구약논단」 27권 2호(통권 80집) (2021), 198-223.

하였다.⁹² 이러한 연구들은 예레미야서를 단순한 멸망 예언이 아니라 국가 붕괴와 집단 상실의 기억 문헌으로 읽으려는 최근 한국 구약학의 흐름을 잘 보여 준다.

최근에는 젠더와 몸의 정치학 문제로도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유연희는 96집에서 예레미야 31장을 퀴어-페미니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예언서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⁹³ 이처럼 최근 「구약논단」의 예레미야 연구는 편집비평, 기억 연구, 트라우마 해석, 젠더 비평을 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공동체 정체성과 회복의 문제를 새롭게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3) 에스겔 연구: 성전, 정체성, 그리고 MT/LXX 본문 전통

에스겔서는 최근 「구약논단」의 예언서 연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 중 하나였다. 이는 에스겔서가 포로기 공동체 정체성, 성전 환상, 영(rúah) 신학, 그리고 본문 전통의 복합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들은 에스겔 36-37장의 회복 신탁,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에스겔 40-48장의 새 성전에 집중하였다. 김상래는 16집에서 에스겔 40-48장의 “새 성전” 정체성을 연구하였으며,⁹⁴ 임시영은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을 중심으로 포로 이후 이스라엘 회복의 희망을 신학적으로 분석하였다.⁹⁵ 또한 한동구는 에스겔 8-11장의 성전 비

92 정미혜, “예레미야서 37-39장에 나타난 시드기야의 정치 세력,” 「구약논단」 29권 4호 (통권 90집) (2023), 349-379.

93 유연희, “퀴어-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읽는 예레미야 31장,”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193-221.

94 김상래,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 16집 (2004), 215-244.

95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 18권 2호(통권 44집) (2012), 58-85.

판을 통해 야훼 임재와 공동체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였다.⁹⁶

이후 연구들은 회개, 거룩, 그리고 공동체 재구성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종록은 에스겔서의 “용서와 회개” 구조를 문학적·신학적으로 분석하였고,⁹⁷ 김동혁은 에스겔의 회개 본문들을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의 신학을 연구하였다.⁹⁸ 김래용은 에스겔 33-39장의 구원 신탁 기능과 에스겔 8-19장의 구조와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에스겔서의 편집 구조와 공동체 회복 신학을 통합적으로 조명하였다.⁹⁹ 홍성민은 에스겔 44장 17-31절의 사독 제사장 법을 분석하면서, 이 규정이 단순한 제의 규범이 아니라 포로 이후 공동체의 거룩성과 제사장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신학적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설명한다.¹⁰⁰

최근에는 영 신학과 MT/LXX 본문 전통 연구가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김주현은 「구약논단」 92집에서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영” 신학을 연구하면서 영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현존하는 생명과 회복의 능력으로 이해된다고 논의하였다.¹⁰¹ 이어서 94집에서는 파피루스(Papyrus) 967과 마소라 본문(MT)의 비교 방법론을 활용하여 에스겔의

96 한동구,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훼의 성전 됨(겔 8-11장),” 「구약논단」 21권 2호(통권 56집) (2015), 9-37.

97 이종록, “에스겔서의 ‘용서와 회개’의 신학과 문학 구조 연구,” 「구약논단」 14집 (2003), 67-104.

98 김동혁, “에스겔서 회개 본문의 의미와 기능: 겔 3:16b-21; 14:1-11; 18:21-32; 33:10-20 주석 연구,” 「구약논단」 21권 4호(통권 58집) (2015), 105-133.

99 김래용, “에스겔 33-39장에 나타난 구원신탁의 기능,” 「구약논단」 24권 1호(통권 67집) (2018), 10-45; 김래용, “에스겔 8-19장의 구조와 메시지,” 「구약논단」 29권 3호(통권 89집) (2023), 323-357.

100 홍성민, “에스겔 44:17-31의 사독 제사장 법의 목적과 기능,” 「구약논단」 26권 2호(통권 76집) (2020), 149-177.

101 김주현,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רוח/루아흐)’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구약논단」 30권 2호(통권 92집) (2024), 106-134.

구원 신탁과 영 신탁을 분석함으로써, 에스겔서를 MT/LXX 본문 다원성의 대표적 사례로 조명하였다.¹⁰²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구약학의 에스겔 연구가 단순한 주석 작업을 넘어 성전, 공동체, 본문 전통, 그리고 포로기 기억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소예언서 연구: 정의, 회복, 열두 예언서의 통일성

소예언서 연구는 「구약논단」 후기 연구사에서 꾸준히 비중이 증가한 분야였다. 초기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와 같은 개별 예언서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열두 소예언서 전체의 편집 구조와 신학적 통일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배희숙은 46집에서 하박국 1-2장의 형성과 편집 과정을 분석하면서 예언서 본문의 성장 과정과 신학적 재구성을 역사비평적으로 조명하였다.¹⁰³ 구자용은 71집에서 열두 소예언서에 나타난 이방 민족 심판 신탁을 분석하면서, 열두 예언서가 단순한 개별 문헌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편집된 신학 문헌으로 읽혀야 함을 주장하였다.¹⁰⁴ 또한 박철우는 MT 소예언서의 집중 구조와 요나서의 문학적 기능을 분석하면서 열두 예언서의 통일성과 편집 전략 문제를 제기하였다.¹⁰⁵

정의(mišpāt)와 사회 비판은 소예언서 연구의 핵심 주제였다. 아모

102 김주현, “Papyrus 967과 MT의 본문-비교(A textualcomparative methodology)를 통한 에스겔서 구원 선포의 신학적 분석: ‘하나님의 영(루아흐, רוּחַ)’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권 4호(통권 94집) (2024), 73-103.

103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18권 4호(통권 46집) (2012), 96-122.

104 구자용, “12 소예언서의 이방 민족들: 이방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5권 1호(통권 71집) (2019), 54-91.

105 박철우, “MT 소예언서의 삼단양식적 구조와 요나서의 문학적 신학적 기능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9권 1호(통권 47집) (2013), 208-237.

스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불의와 공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박종수는 아모스 5장 1-17절을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였고,¹⁰⁶ 한규승은 “토라적 공공성” 개념을 통해 아모스의 사회 비판을 재조명하였다.¹⁰⁷ 이상원은 94집에서 아모스서의 지진 모티프를 역사적 사건과 예언 신학의 관점에서 연결하면서, 자연 재난이 야훼의 심판과 사회 정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능함을 해석하였다.¹⁰⁸ 최근에는 김래용이 97집에서 아모스서의 구조와 메시지를 “이스라엘 심판과 야훼 주권”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하였다.¹⁰⁹ 이러한 연구들은 소예언서가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공동체 윤리를 성찰하는 예언 전통임을 보여 준다.

회복과 공동체 재구성 역시 중요한 흐름이었다. 미가 연구에서는 남은 자(šē'érît) 사상과 시온 회복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김래용은 미가서의 미쉬파트(mišpāt)와 남은 자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 신학을 분석하였고,¹¹⁰ 이준혁은 95집에서 미가서를 “시온 심판과 희망의 이중주”라는 문학적 통일성 속에서 읽어 내었다.¹¹¹

최근 연구들은 포로기 이후 공동체와 성전 중심 회복 신학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김래용은 96집에서 학개·스가라·말라기의

-
- 106 박종수, “아모스 5:1-17 연구: 사회경제사적인 이해,” 『구약논단』 5집 (1998), 97-132.
 107 한규승, “‘토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공공담론: 아모스 2장 6-7절의 재해석,” 『구약논단』 22권 1호(통권 59집) (2016), 62-101.
 108 이상원, “아모스서에 나타난 지진의 의미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30권 4호(통권 94집) (2024), 177-203.
 109 김래용, “아모스서의 구조와 메시지: 이스라엘의 심판과 야훼의 주권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19-53.
 110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웨에리트,” 『구약논단』 21권 3호(통권 57집) (2015), 10-37.
 111 이준혁, “미가서의 문학적 통일성: 시온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이중주,” 『구약논단』 31권 1호(통권 95집) (2025), 167-201.

메시지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후기 예언서들이 성전 재건과 공동체 재구성을 공통된 신학적 주제로 공유한다고 설명하였다.¹¹² 이처럼 최근 「구약논단」의 소예언서 연구는 정의, 회복, 열방, 공동체 정체성, 그리고 열두 예언서의 편집 통일성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5) 다니엘 연구: 묵시문학, 제국 비판, 그리고 종말론

다니엘서는 「구약논단」 후기 연구사에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분야였으며, 특히 묵시문학과 제국 비판의 관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초기 연구들은 다니엘서의 포로기 신학과 종말론에 집중하였다. 배정훈은 다니엘서를 포로 신학의 관점에서 읽으면서 제국 지배 아래 놓인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 문제를 분석하였고,¹¹³ 이어서 연대기 구조를 중심으로 다니엘서의 종말론을 연구하였다.¹¹⁴ 또한 조명기는 4Q246과 다니엘 7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다니엘서와 제2성전기 유대 묵시사상의 연속성을 탐구하였다.¹¹⁵

이후 연구들은 다니엘서의 형성과 정경 문제로 확장되었다. 배정훈은 “새 계시 논쟁”을 통해 다니엘서의 형성을 논의하면서, 예언과 묵시의 전환 속에서 다니엘서가 후기 계시 문헌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하였다.¹¹⁶ 또한 안근조는 91집에서 “구약의 메시아” 연구를 통해 다

112 김래용, “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의 메시지의 연관성: 성전과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84-122.

113 배정훈, “포로의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15권 4호(통권 34집)(2009), 69-86.

114 배정훈,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19권 3호(통권 49집) (2013), 323-347.

115 조명기, “4Q246과 다니엘 7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2008), 125-144.

116 배정훈, “새 계시(New Revelation) 논쟁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의 형성,” 「구약논단」 25

니엘 7장 13절의 “인자 같은 이” 전승이 후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¹¹⁷

최근에는 본문비평과 문화비평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곽은성은 96집에서 원칠십인역(Proto-Septuagint) 수산나와 테오도시온(Theodotion) 본문을 비교하면서 다니엘 전승 안에 나타난 헬레니즘 교양(paideia) 요소를 분석하였고,¹¹⁸ 이는 다니엘 연구가 묵시신학뿐 아니라 헬라이어 전승과 LXX 본문 연구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윤경은 「구약논단」 97집에서 다니엘서를 포스트식민주의 비평으로 읽으면서, 바빌로니아와 헬레니즘 제국 지배 아래 놓인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저항의 상상력과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했는지를 탐구하였다.¹¹⁹ 최근 배정훈은 99집에서 다니엘서의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을 비교하면서, 다니엘서가 예언 전통과 묵시 전통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문헌임을 강조하였다.¹²⁰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구약학의 다니엘 연구가 단순한 미래 예언 해석을 넘어, 제국 비판, 공동체 저항, 본문 전통, 그리고 종말론적 희망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권 3호(통권 73집)(2019), 158-179.

117 안근조, “구약성서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논단」 30권 1호(통권 91집) (2024), 166-208.

118 곽은성, “테오도치온 다니엘 수산나와의 비교를 통한 원-칠십인역 다니엘 수산나의 파이데이아적 요소,”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56-83.

119 이윤경, “탈식민 비평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342-371.

120 배정훈, “다니엘서의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 「구약논단」 32권 1호(통권 99집) (2026), 174-198.

3. 방법론 발전사

「구약논단」의 연구사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구약학의 방법론적 전환과 확장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초기 형성기에는 역사비평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본문의 형성사, 전승사, 역사적 배경 재구성에 집중하였으며, 신명기와 예언서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정중호는 신명기 32장과 호세아서의 전승적 연관성을 분석하였고,¹²¹ 차준희는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와 미가 전승의 관계를 연구하였다.¹²² 또한 박종수의 아모스 5장 사회경제사 연구는 역사적 상황과 예언 전통을 연결하려는 초기 연구 경향을 잘 보여 준다.¹²³

2000년대 이후에는 문학비평과 내러티브 접근이 한국 구약학의 중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는 본문의 형성사나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최종 형태의 본문이 지닌 문학적 완결성과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 형성 과정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야기의 구조와 플롯(plot), 반복과 대조, 인물 형상화(characterization), 화자의 관점, 수사적 장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본문이 어떻게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탐구하였다.

특히 내러티브 비평은 독자의 읽기 경험과 의미 생성 과정을 강조 하면서 역사비평 중심의 연구 지형을 확장시켰다. 또한 구조주의적 접근은 본문 내부의 대칭 구조와 의미망을 분석하였으며, 수사비평은 설득 전략과 담론 구조를 해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21 정중호, “신명기 32:1-43과 호세아서의 유사성 연구.” 「구약논단」 제1집(1995), 91-107.

122 차준희,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와 미가 전승.”

123 박종수, “아모스 5:1-17 연구: 사회경제사적 이해.”

성서 본문을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 독립된 문학 작품이자 신학적 담론으로 이해하려는 한국 구약학의 해석학적 전환을 보여 준다. 나아가 문학비평은 호세아서, 요나서, 사사기, 시편, 아가 등 다양한 본문에 적용되면서 한국 구약학의 주요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정착하게 되었다.¹²⁴

동시에 편집비평과 정경비평 역시 한국 구약학의 중요한 해석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문을 단순히 전승 단위들의 집합으로 이해하기보다, 최종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신학적 문헌으로 읽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개별 본문보다 문헌 전체의 구조와 배열, 반복되는 주제와 신학적 강조점을 분석함으로써 최종 본문의 통일성과 메시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예언서 연구에서는 열두 예언서를 독립된 책들의 단순한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편집된 문학 단위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예언서 전체의 구조와 배열 원리, 중심 주제, 정경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편집비평은 본문의 형성 과정을, 정경비평은 최종 형태의 신학적 의미를 해명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성경을 역사적 전승의 산물인 동시에 공동체의 신앙과 신학이 반영된 정경 문헌으로 이해하려는 한국 구약학의 해석학적 성숙을 보여 준다.¹²⁵

2010년대 이후에는 사회과학 비평, 정치신학, 트라우마 연구, 포스

124 최기수, “구조주의 비평을 통한 호세아 1장 연구,” 『구약논단』 제21집(2006), 108-124; 박경식, “요나 4:10-11 열린 결말의 내러티브 비평 연구,” 『구약논단』 28권1호 통권83집(2022), 93-123; 양인철, “삼손 이야기(삿 13-16장)의 수사비평적 읽기”;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이유미, “아가의 사랑 프레임 재구성.”

125 구자용, “열두 소예언서에 나타난 이방 민족”; 박철우, “MT 소예언서의 집중 구조와 요나서의 문학적·신학적 기능 연구”; 이준혁, “미가서의 문학적 통일성: 시온 심판과 회망의 이중주.”

트식민주의 비평이 한국 구약학의 주요 해석 방법론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경 본문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산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 사회 구조, 집단 기억, 공동체 정체성, 억압과 저항의 문제를 해석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예언서 연구에서는 사회 정의와 공공성, 제국과 권력, 공동체의 위기와 회복이 핵심 주제로 부상하였으며, 본문이 형성된 사회적 맥락과 현대 독자의 현실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트라우마 연구는 전쟁, 포로, 상실, 회복의 경험을 공동체 기억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정치신학적 연구는 국가 권력과 제국 질서 속에서 형성된 성경의 저항 담론과 공공성을 탐구하였다. 또한 포스트식민주의 비평은 제국과 피지배 공동체의 관계, 타자성(otherness), 정체성 형성 문제를 해석의 중심에 놓으면서 구약성경을 현대 사회의 정치적·윤리적 과제와 대화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한국 구약학이 본문 중심 연구를 넘어 사회 현실과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공공적 해석학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¹²⁶

고대근동 비교연구와 문화해석 역시 한국 구약학의 중요한 연구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약성경을 고립된 종교 문헌으로 이해하기보다, 고대근동의 역사·문화·종교·문학 전통 속에서 해석하려는 시도에 기초한다. 연구자들은 우가리트 문학, 메소포타미아 문헌, 페르시아 제국 자료, 고고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경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특히 비교문헌 연구는 성경과 고대근동 문헌 사이의 공통점과

126 한규승, “‘토라적 공공성’ 관점에서 다시 본 아모스의 공적 담론”; 양인철, “트라우마 관점에서 읽는 예레미야 16장”; 정미혜, “예레미야 37-39장의 시드기야 정치 세력”; 이윤경, “포스트식민주의 비평으로 읽는 다니엘서.”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본문의 독창성과 신학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은 제의, 상징, 정결 개념, 종교 실천 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였으며, 최근에는 도상학(iconography)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텍스트와 시각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구약성경을 단순한 문자 텍스트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문화적 산물로 이해하려는 해석학적 확장을 보여 주며, 한국 구약학이 문헌 연구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 준다.¹²⁷

여성주의와 젠더 연구 역시 2000년대 이후 한국 구약학의 중요한 해석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주변화되거나 침묵당했던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에 주목하면서, 성경 본문 속 여성 인물과 여성 이미지를 새롭게 읽어 내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주의 비평은 본문에 내재된 가부장적 구조와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억압과 배제의 경험 속에서도 여성들이 형성해 온 신앙과 정체성을 조명하였다.

최근에는 젠더 연구와 퀴어 해석이 도입되면서 성별, 몸, 정체성, 타자성(othersness)과 같은 주제가 중요한 해석 범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 인물에 대한 재평가뿐 아니라 폭력, 낙인, 차별, 치유, 공동체 회복과 같은 문제들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구약성경을 단순히 고대 사회의 산물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젠더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성찰하는 공공적·해방적 해석학으로

127 엄원식, “우가릿 문학으로 조명한 에스겔서의 다니엘: 아캇(Aqhat)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집, 45-79; 최철규, “제2이사와와 키루스 원통의 비교 연구”; 강승일, “우림과 둠뭉, 예봇, 그리고 언약케 - 제사장의 점술 도구들,” 「구약논단」 18권 2호(통권 44집) (2012), 112-135; 강승일, “구약성서와 인류학 - 프레이지의 공감주술에서 더글라스의 거룩함의 개념까지,” 「구약논단」 21권 2호(통권 56집) (2015), 177-204; 강승일, “고대 이스라엘의 신상과 신상의 입을 여는 의식,” 「구약논단」 21권 3호(통권 57집) (2015), 156-183; 김예슬, “아가 6:11-12에 대한 도상학적 읽기.”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¹²⁸

최근에는 생태비평(ecocriticism)과 환경 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 구약학에서도 창조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 성경 해석을 넘어 땅, 물, 동물, 생태계 전체를 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창조신학, 땅의 신학, 생명 공동체, 환경 정의와 같은 주제들이 부각되면서 성경 본문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생태비평은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라는 현대적 문제를 성서 해석의 중요한 맥락으로 수용하면서, 창조세계의 상호연결성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자연과 환경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의미를 지닌 주체적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구약성경의 신학적 함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한국 구약학이 현대 사회의 생태적 위기에 응답하면서 공공신학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¹²⁹

가장 최근에는 디지털 성서학(Digital Biblical Studies)과 인공지능(AI) 기반 연구가 새로운 방법론적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인 본문 연구와 해석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성경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분석, 디지털 아카이브, 가상 연구 환경, 생성형

128 박지은, “아가와 잠언의 여성을 통해 본 여성 이분법 재고찰”; 유연희, “호세아서에 대한 퀴어-페미니즘적 읽기”; 정미혜, “예레미야와 여성의 몸의 정치학”; 정미혜, “사사기의 성폭력 서사와 연쇄 폭력 연구” 등.

129 임효명, “생태 위기 시대의 성서 읽기: 스바냐의 야훼의 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22), 372-401; 송승인, “상징/문자 결정 지표를 활용한 스가라 14:8, 요엘 3:18, 에스겔 47:1-12에 등장하는 물의 의미에 대한 재고,” 『구약논단』 26권 1호(통권 75집) (2020), 120-147.

AI의 활용 등은 성서학 연구의 대상뿐 아니라 연구 방법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인공지능이 본문 해석과 신학적 논의에 어떠한 기여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성서 해석 공간의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성서학이 더 이상 인쇄 매체와 전통적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문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연구 환경과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이는 「구약논단」이 전통적 성서학과 첨단 기술의 접점을 탐색하면서 미래 지향적 연구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¹³⁰

4. 시대별 구약논단의 발전 과정

1) 형성기: 학문 제도화와 역사비평 중심 연구(1-10집, 1995-2000)

「구약논단」의 형성기는 한국 구약학이 독자적 학술지와 연구 공동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시기였다. 이 시기 연구는 주로 오경, 예언서, 히브리어 본문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독일 역사비평의 영향 아래 자료비평, 전승사, 양식비평, 편집비평이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창세기 창조 기사, 출애굽과 언약, 신명기 율법, 예언자의 사회정의 메시지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¹³¹ 동시에 히브리어 문법과 번역, 본문비평에 대한 관심도 강하게 나타나, 한국 구약학의

130 김준, “챗GPT를 활용한 구약성경 연구의 가능성: 욥기 42장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이유미, “유용한 해석적 도구인 ‘비블리카버스’ (biblicaverse) 구축을 위한 제언-ID drama의 아가 연구 가상체험기.”

131 남대국, 윗글; 박선진, 윗글.

원전 연구 기반을 형성하였다.¹³²

2) 성장기: 연구 영역 확대와 문학비평의 등장(11-30집, 2001-2009)

성장기에는 연구 대상이 오경과 예언서를 넘어 역사서, 시편, 욥기, 전도서, 제2성전기 문헌으로 확대되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연구가 증가하였고, 시편과 지혜문학 연구도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¹³³ 방법론적으로는 역사비평이 여전히 중심을 이루었으나, 문학비평, 수사비평, 사회사적 읽기가 점차 등장하였다. 사무엘서, 요나서, 아모스서 연구에서 본문의 구조, 서사 전략, 수사적 기능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구약학이 본문의 형성사뿐 아니라 최종 본문의 문학성과 신학적 메시지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¹³⁴

3) 전환기: 방법론의 다원화와 공동체 중심 해석(31-60집, 2010-2018)

전환기는 「구약논단」 연구사가 본문 중심 해석에서 공동체와 독자 중심 해석으로 이동한 시기였다. 정경비평, 독자반응비평, 기억 연구, 제국 비평, 트라우마 해석이 점차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연구들은 성서 본문을 단순한 고대 문헌으로 보지 않고, 포로기 공동체의 기억, 디아스포라 정체성, 타자성, 권력과 제국, 고난과 회복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¹³⁵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 전도서, 다니엘 연구에서 공동체 붕괴와 회복, 포로기 이후 정체성, 제국 지배 아래의

132 이동수, “호세아 4:4 후반부의 본문과 번역,” 「구약논단」 제1집 (1995), 233-258.

133 원진희, 윗글;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134 구자용, “삼하 11장-아이라니화된 왕의 지혜”; 박경식, “요나 4:10-11 열린 결말의 내러티브 비평 연구.”

135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포로기 이후 신학.”

신앙 형성 문제가 두드러지게 논의되었다.¹³⁶

4) 확장기: 현대 해석학과 융합 방법론(61-99집, 2019-2026)

확장기는 「구약논단」이 현대 사회의 문제의식과 본격적으로 대화한 시기이다. 사회윤리, 젠더, 생태, 트라우마, 포스트식민주의, 디지털 해석학, AI 연구가 활발하게 등장하였다. 경제 정의, 약자 보호, 난민과 다문화, 여성 인물 재해석, 쿼어 읽기, 기후 위기, 인공지능과 인간 이해 등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¹³⁷ 또한 고대근동 비교연구도 단순한 배경 연구를 넘어 문화 해석, 도상학, 제국 이데올로기, 상징 체계 분석으로 확장되었다.¹³⁸ 이 시기의 특징은 단일 방법론보다 역사비평, 문학비평, 사회비평, 젠더비평, 생태비평, 디지털 해석학이 결합되는 융합적 연구 경향이라 할 수 있다.¹³⁹

5. 한국 구약학의 신학적 특징

「구약논단」의 연구사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구약학이 단순한 본문 분석을 넘어 공동체와 현실을 지향하는 신학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보여 준다. 첫째, 한국 구약학은 공동체 중심 해석을 중요한 특징으로 지닌다. 포로기 공동체, 디아스포라 정체성, 남은 자 사상, 회복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에스

136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137 유연희, 윗글; 임효명, 윗글.

138 최철규, 윗글; 김예슬, 윗글.

139 김준, 윗글; 이유미, “유용한 해석적 도구인 ‘비블리카버스’ 구축을 위한 제안.”

겉, 미가, 학개-스가라-말라기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¹⁴⁰ 성경은 개인의 종교 경험보다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신학 문헌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윤리적 관심의 지속성이 한국 구약학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아모스와 미가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정의, 공공성, 경제적 약자 보호, 공동체 윤리가 꾸준히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난민, 다문화, 젠더, 생태 문제까지 확장되었다.¹⁴¹ 이는 구약성경을 단순한 고대 종교 문헌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와 대화하는 텍스트로 읽으려는 경향을 보여 준다.

셋째, 한국 구약학은 역사적 현실과의 밀접한 연결을 유지하였다. 예언서와 지혜문학 연구에서는 제국 지배, 사회 붕괴, 정치 권력, 포로 경험, 경제적 불의와 같은 역사적 현실이 적극적으로 해석되었다.¹⁴² 특히 다니엘, 예레미야, 전도서 연구는 현대 사회의 불안, 권력 구조, 인간 존재의 한계를 성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¹⁴³ 이는 한국 사회의 분단, 민주화, 경제 위기, 그리고 현대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이 성서 해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한국 구약학은 교회와 학문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였다. 「구약논단」의 연구들은 학문적 역사비평과 본문 연구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설교, 영성, 교회 공동체 적용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¹⁴⁴ 특히 시편, 전도서, 욥기 연구에서는 학문적 주석과 교회 현실 사

140 이준혁, “미가서의 문학적 통일성: 시온 심판과 희망의 이중주,” 「구약논단」 31권 1호(통권 95집) (2025); 김래용, “학개·스가라·말라기 메시지의 연관성.”

141 한규승, 율글; 유연희, 율글; 임효명, 율글.

142 정미혜, 율글; 김래용, “아모스서의 구조와 메시지.”

143 이윤경, “포스트식민주의 비평으로 읽는 다니엘서”; 윤형, “전도서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의 의미.”

144 김아운, “응답 없는 탄식의 기도: 시편 88편의 주석적 연구와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적 적

이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자주 나타난다.

다섯째, 고난과 회복의 신학은 한국 구약학의 중요한 신학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트라우마, 상실, 포로, 탄식, 그리고 회복의 문제는 예레미야, 에스겔, 욥기, 요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¹⁴⁵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가 트라우마 이론, 기억 연구, 생태 위기, AI 시대 인간성 문제와 결합되면서 더욱 확장되고 있다.¹⁴⁶ 이러한 흐름은 한국 구약학이 단순한 본문 재구성을 넘어, 고난 속 공동체의 회복과 희망을 탐구하는 실천적 신학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6. 학문적 기여와 한계

「구약논단」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구약학을 대표하는 학술지로 성장하면서 한국 구약학 연구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무엇보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제2성전기 문헌, 히브리어와 본문비평, 고대근동 비교연구 등 폭넓은 연구 영역을 지속적으로 포괄함으로써 한국 구약학의 학문적 지형을 형성하였다.¹⁴⁷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와 학문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면서 차세대 학자 양성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였다.¹⁴⁸

용,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54-88; 채은하, “지혜문학과 설교: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4권 1호 (2018), 162-188.

145 양인철, “트라우마 관점에서 읽는 예레미야 16장”; 양인철, “에스겔의 아내에 대한 침묵의 애도”; 김영호, “욥기는 왜 쓰였는가,”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89-126.

146 김준, 윗글.

147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148 강후구, 윗글; 김예슬, 윗글.

또한 「구약논단」은 국제 학계와의 연결 창구 역할도 수행하였다. 해외 학자들의 번역 논문과 국제 학계 방법론 소개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영어 논문과 AI·디지털 해석학 연구도 등장하였다.¹⁴⁹ 이는 한국 구약학이 독일 역사비평 전통뿐 아니라 정경비평, 트라우마 연구, 포스트식민주의, 디지털 해석학 등 국제적 흐름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구약논단」은 다양한 방법론이 실험되는 “방법론적 실험실(methodological laboratory)”로 기능하였다. 역사비평, 문학비평, 사회과학 비평, 여성주의, 생태비평, 디지털 해석학이 공존하면서 한국 구약학의 연구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다.¹⁵⁰

그러나 몇 가지 한계 역시 존재한다. 첫째, 국제 언어 논문의 비율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국제 학계와의 직접적 소통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최근 일부 영어 논문이 등장하였으나, 전체 연구사의 대부분은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⁵¹ 둘째, 데이터베이스 접근성과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 역시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연구 검색과 국제적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 셋째, 연구 주제가 오경, 예언서, 사회윤리, 공동체 해석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히브리어 언어학, 셈어 비교언어학, 비문학 자료 연구, 순수 본문비평과 같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¹⁵² 그럼에도 불

149 Marvin Sweeney, “Unfinished Tasks in the book of Isaiah,” 「구약논단」 18권 1호(통권 43집)(2012), 206-221; 김준, 외글.

150 유연희, 외글; 임효명, 외글; 이윤경, “포스트식민주의 비평으로 읽는 다니엘서.”

151 David J. Fuller, “Empirical Models for the Compositional History of Habakkuk,” 「구약논단」 30권 2호(통권 92집) (2024), 238-266; Yoonhee Ahn, “The Long-Term Process of Hebrew Script in Light of Recent Epigraphic Discoveries: From Proto-Sinaitic Beginnings to Iron Age Standardization,” 「구약논단」 32권 1호(통권 99집) (2026), 234-262 외 다수.

152 유윤중,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구약논단」 제11집(2001), 71-90; 김정훈, “8HevXIIgr 하박국 본문을 중심으로 본 헬라/초기 유대교 시대 히브리 자음본문의 형태,” 「구약논단」 18권 4호(2012), 123-150.

구하고 「구약논단」은 한국 구약학의 연구 흐름과 시대적 문제의식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 학술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 미래 과제

「구약논단」의 지난 30년 연구사는 한국 구약학이 역사비평 중심의 전통적 연구에서 출발하여 문학비평, 사회과학 비평, 젠더 연구, 생태비평, 디지털 해석학으로까지 연구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환경 속에서 구약학의 공공성과 국제성, 그리고 학문적 확장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있다.

첫째, AI 시대의 구약학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최근 「구약논단」에는 ChatGPT를 활용한 율기 해석 가능성 연구와 “Biblicaverse”와 같은 디지털 성서 해석 공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¹⁵³ 이는 AI가 단순한 기술적 보조 수단을 넘어, 성서 해석과 인간 이해 자체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는 AI 기반 텍스트 분석, 디지털 주석학, 알고리즘 편향 문제, 그리고 인간 해석의 고유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 공동연구의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구약논단」은 한국어 중심의 연구를 통해 한국 구약학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지만, 앞으로는 영어 논문 확대와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구

153 김준, 윗글: 이유미, “유용한 해석적 도구인 ‘비블리카버스’(biblicaverse) 구축을 위한 제안-ID drroma의 아가 연구 가상체험기.”

약학과의 직접적 연결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¹⁵⁴ 특히 고대근동 비교연구, 사해사본과 LXX 연구, 디지털 본문비평, 제2성전기 유대교 연구 등은 국제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 본문비평과 데이터 기반 성서학의 발전이 요구된다. 최근 Papyrus 967, LXX, Qumran 자료, 8HevXIIgr 본문 등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으나,¹⁵⁵ 앞으로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퍼스 언어학, AI 기반 본문 비교, 시각화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구약학이 전통적 문헌 연구를 넘어 디지털 인문학과 결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한국 공공신학과 구약학의 연계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연구들은 경제 정의, 사회적 약자 보호, 난민과 다문화, 젠더, 생태 위기와 같은 현대 사회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¹⁵⁶ 앞으로는 구약의 정의(mišpāt), 공의(šēdāqāe), 샬롬(šālóm) 사상이 한국 사회와 교회의 공공 윤리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더욱 심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구약논단」 자체의 미래 발전 전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구약논단」 100집은 단순한 기념호가 아니라 한국 구약학의 새로운 세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학문 환경은 국제화, 디지털화, 융복합 연구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술지 운영 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구약논단」은 이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체계를 도입하

154 David J. Fuller, *위글*; Marvin Sweeney, *위글*.

155 박은성, “테오도치온 다니엘 수산나와의 비교를 통한 원-칠십인역 다니엘 수산나의 파이데이아적 요소,”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2025), 56-83; 김주현, *위글*; 김정훈, *위글*.

156 한규승, *위글*; 임효명, *위글*; 유연희, *위글*.

여 각 논문의 국제적 식별과 인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자 식별을 위한 ORCID 체계 또한 학술 생태계 안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DOI와 ORCID의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국제 학술 표준에 부합하는 활용 체계의 고도화와 국제적 가시성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문 논문의 확대, 디지털 아카이브의 고도화, 온라인 본문비평 자료 구축,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형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나아가 Scopus와 A&HCI 등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구약논단」은 동아시아와 세계 구약학을 연결하는 국제적 학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구약논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론이 공존하는 “방법론적 실험실(methodological laboratory)”의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역사비평, 문학비평, 정경비평, 젠더 연구, 생태비평, 디지털 해석학, AI 기반 연구가 상호 융합되는 “융합적 구약학(convergent Old Testament studies)”은 앞으로의 핵심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논단」의 다음 100집은 단순한 축적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구약학의 새로운 지적 지도(intellectual map)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8. 결론

본 연구는 「구약논단」 제1집(1995)부터 제99집(2026)까지의 전체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한국 구약학의 발전 과정을 학문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개별 논문이나 방법론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대표 학술지가 한국 구약학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 시대적 현실 인식, 그리고 해

석학적 전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약논단」의 연구사는 한국 구약학이 단선적이거나 획일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오히려 역사비평, 문학비평, 신학적 해석, 사회적 현실 인식, 그리고 다양한 현대 해석학이 서로 긴장과 대화를 이루며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연구는 독일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비평과 전승사적 방법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본문의 형성사와 편집 과정,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약논단」은 점차 기억과 정체성, 트라우마와 회복, 젠더와 몸, 생태와 창조, 제국과 폭력,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학문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논단」의 의미는 단순한 연구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구약학의 지적 상상력과 해석학적 전환 과정을 기록한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구약학이 단순한 서구 학문의 수용 단계를 넘어 점차 독자적인 해석학적 문제의식을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유럽과 북미 중심의 방법론을 수용하고 소개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후기 연구로 갈수록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교회 현실, 사회적 갈등과 세계적 위기를 반영한 해석이 증가하였다. 분단과 전쟁의 기억, 공동체 상실과 회복, 경제 정의, 생태 위기, 기술 문명과 인간 정체성의 문제 등이 구약성서 해석과 적극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한국 구약학이 더 이상 서구 학문의 단순한 재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성서를 새롭게 읽어 내는 학문적 전통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 구약학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드

러낸다. 방법론적 다양성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문헌학적·언어학적 엄밀성과 현대 해석학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히브리어 언어학, 본문비평, 칠십인역 연구, 디지털 성서학, 고대근동 비교연구 등은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연구 기반과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또한 다양한 융합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연구와 신학적 해석, 윤리적 성찰과 디지털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연구 모델은 여전히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구약논단」의 중요성은 단순히 논문 수의 증가에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 학계와의 협력, 학제 간 연구, 차세대 연구자 양성, 디지털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중심 플랫폼으로 얼마나 기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미래의 구약학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 기후 위기 속 창조신학, 디지털 본문비평, 글로벌 이주와 공동체 윤리, 기술 문명 속 종교적 상상력과 같은 새로운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약학은 철학, 디지털 인문학, 생태학, 사회과학, 미디어 연구 등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논단」 제100집은 단순한 기념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난 30년이 한국 구약학의 제도화와 연구 축적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국제화, 융합화, 그리고 창조적 확장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특히 DOI와 ORCID의 전면 도입,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영어 논문 확대,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강화, AI 및 데이터 기반 성서연구의 활성화 등은 앞으로 「구약논단」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약논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구약학 학술지를 넘어 동아시아 성서학과 세계 구약학을 연결하는 국제적 연구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다.

결국 「구약논단」의 역사는 단순한 학술지의 연대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구약학이 시대마다 어떠한 질문을 제기하였고, 어떠한 방법

론을 수용하였으며, 어떠한 신학적·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지적 기억의 역사이다. 따라서 「구약논단」은 지난 시대의 연구를 보존하는 아카이브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구약학이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살아 있는 학문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구약논단」 수록 논문

-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약논단」 23권 1호(통권 63집) (2017), 104-138.
- 강승일. “우림과 둠뫼, 에봇, 그리고 언약궤: 제사장의 점술 도구들.” 「구약논단」 18권 2호(통권 44집) (2012), 112-135.
- _____. “구약성서와 인류학: 프레이지의 공감주술에서 더글라스의 거룩함의 개념까지.” 「구약논단」 21권 2호(통권 56집) (2015), 177-204.
-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신상과 신상의 입을 여는 의식.” 「구약논단」 21권 3호(통권 57집) (2015), 156-183.
-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3권 1호(통권 45집) (2017), 139-164.
- 강후구.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7권 2호(통권 80집) (2021), 132-168.
- 구본삼. “역대기 이해를 위한 배경으로서 포로 후 공동체가 직면한 연속성과 불연속성 논의.” 「구약논단」 27권 2호(통권 80집) (2025), 19-55.
- 구자용. “삼하 11장: 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구약논단」 16권 1호(통권 35집) (2010), 119-140.
- _____.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18권 1호(통권 43집) (2012), 82-104.
- _____. “12 소예언서의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5권 1호(통권 71집) (2019), 54-91.
- _____.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함에 대한 사탄의 질문과 욥의 응답: 욥기 1:9 이

- 하와 19:6-20, 25-27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30권 2호(통권 92집) (2024), 7-43.
- 기민석. “시 82편: 우가릿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30권 2호(통권 92집) (2009), 111-130.
- _____. “가부장의 권위와 공동체의 견제: 신명기 21:18-21의 사회사적 이해.”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346-378.
- 김도형.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의 문학적 구조와 스토리텔링.” 「구약논단」 25권 4호(통권 74집) (2019), 221-252.
- _____. “창세기 내러티브 읽기: 익숙함과 낯섦의 주제.” 「구약논단」 28권 2호(통권 84집) (2022), 43-76.
- _____. “구약 내러티브 비평과 본문의 실제적 적용: 창세기 47:27-50:26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379-408.
- 김동혁. “에스겔서 회개 본문의 의미와 기능: 겔 3:16b-21; 14:1-11; 18:21-32; 33:10-20 주석 연구.” 「구약논단」 21권 4호(통권 58집) (2015), 105-133.
- _____.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27권 3호(통권 81집) (2021), 131-154.
-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쉘에리트.” 「구약논단」 21권 3호(통권 57집) (2015), 10-37.
- _____. “에스겔 33-39장에 나타난 구원신탁의 기능.” 「구약논단」 24권 1호(통권 67집) (2018), 10-45.
- _____. “이사야서에 나타난 야웨의 주권과 고이.” 「구약논단」 27권 2호(통권 80집) (2021), 10-45.
- _____. “예레미야 25-44장의 메시지: 3단계 구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22), 10-42.
- _____. “에스겔 8-19장의 구조와 메시지.” 「구약논단」 29권 3호(통권 89집) (2023), 323-357.
- _____.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메시지의 연관성: 성전과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84-122.
- 김상래. “이사야 6장의 ‘이상의 현장’(visionary locale)은 어디인가?: 1절의 헤칼/성전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3권 3호(통권 25집) (2007), 30-47.
- _____.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 16집 (2004), 215-244.
- _____. “한국인 구약학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 분석.” 「구약논단」 17권 1호(통권 39집) (2011), 179-206.

- 김연영. “구약 잠언의 여성 ‘지혜’와 도덕경의 ‘도(道)’의 여성성 비교.” 『구약논단』 30권 1호(통권 91집) (2024), 9-45.
- 김선중. “슬픔의 형이상학: 예레미야와 멜랑콜리아.” 『구약논단』 27권 2호(통권 80집) (2021), 198-223.
- _____.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교회: 레위기의 정결법(레 11-15)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9권 1호(통권 87집) (2023), 301-328.
- 김아윤. “응답 없는 탄식의 기도: 시편 88편의 주석적 연구와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적 적용.”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54-88.
- 김영호. “욥기는 왜 쓰였는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 사건’을 배경으로.”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89-126.
- 김영혜.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재고.”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22), 72-101.
- 김예슬. “도상학적 방법론을 통한 구약성서 해석의 예: 아가 6장 11-12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91-123.
- 김재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의 신학적인 기능.” 『구약논단』 13권 3호(통권 25집) (2007), 70-88.
- _____. “예레미야서의 여호야김 4년의 수수께끼.” 『구약논단』 22권 3호(통권 61집) (2016), 12-40.
- _____.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10), 74-97.
- _____.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사건(삼상 17:55-58)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 『구약논단』 17권 1호(통권 39집) (2011), 59-82.
- 김정훈. “8HevXIgr 하박국 본문을 중심으로 본 헬라/초기 유대교 시대 히브리 자음 본문의 형태.” 『구약논단』 18권 4호(통권 46집) (2012), 123-150.
- 김주현. “지도자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이사야서의 영 신학: 11:2; 42:1, 5; 59:21; 61:1의 통합적 고찰.” 『구약논단』 32권 1호(통권 99집) (2026), 118-148.
- _____.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רוח/루아흐)’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구약논단』 30권 2호(통권 92집) (2024), 106-134.
- _____. “Papyrus 967과 MT의 본문-비교(A textual comparative methodology)를 통한 에스겔서 구원 선포의 신학적 분석: ‘하나님의 영(루아흐, רוּחַ)’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권 4호(통권 94집) (2024), 73-103.
- 김준. “ChatGPT를 활용한 구약성경 연구의 가능성: 욥기 42:6의 새로운 해석을 중

- 심으로.” 「구약논단」 31권 1호(통권 95집) (2025), 19-50.
-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15권 2호(통권 32집) (2009), 83-110.
- 김진명.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의 의미 해석.” 「구약논단」 20권 1호(통권 51집) (2014), 96-121.
-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15권 2호(통권 32집) (2009), 63-82.
- 김홍현. “전도서에서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 두 개의 열쇠어와 전도서 9장 7-10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9권 4호(통권 90집) (2023), 280-308.
- 김희권. “이사야의 하나님의 결정 신학: 이사야 6장 주석 연구.” 「구약논단」 13권 3호(통권 25집) (2007), 10-29.
- 남대극. “창세기 1:1의 번역과 의미.” 「구약논단」 제2집 (1996), 7-23.
- 곽은성. “테오도치온 다니엘 수산나와의 비교를 통한 원-칠십인역 다니엘 수산나의 파이데이아적 요소.”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56-83.
-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포로기 이후 신학.” 「구약논단」 20권 3호(통권 53집) (2014), 256-279.
- _____. “브나트세와 요시아의 평가를 통해서 보는 역대기.” 「구약논단」 29권 3호(통권 89집) (2023), 81-108.
- _____. “오경의 완성과 그 신학: 신명기 34장에 나타난 모세의 죽음과 토라의 권위.”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323-353.
- 박경식. “요나 4:10-11 열린 결말의 내러티브 비평 연구.” 「구약논단」 28권 1호(통권 83집) (2022), 93-123.
-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 사 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6권 4호(통권 38집) (2010), 114-136.
- 박선진. “신명기의 생축 도살 규정에 관한 전승사적 연구.” 「구약논단」 제6집 (1999), 27-52.
- 박유미. “다윗의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 구성과 다말 내러티브와의 상호 본문적 읽기.” 「구약논단」 제96집 (2025), 158-192.
- 박종수. “고레스 찬가(사 44:24-45:8).” 「구약논단」 제2집 (1996), 80-104.
- 박종수. “아모스 5:1-17 연구: 사회경제사적인 이해.” 「구약논단」 제5집 (1998), 97-132.
- 박지은. “이상한 여자를 찾아서: 아가와 잠언의 여성 읽기를 통한 이원론적 여성관의 재조명.” 「구약논단」 19권 1호(통권 47집) (2013), 157-182.

- _____. “타자화된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아가의 몸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19권 3호(통권 49집) (2013), 152-177.
- 박철우. “MT 소예언서의 집중 구조와 요나서의 문학적·신학적 기능 연구.” 『구약논단』 19권 1호(통권 47집) (2013), 208-237.
-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 1호(통권 79집) (2021), 61-96.
- 배정훈. “포로의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15권 4호(통권 34집) (2009), 69-86.
- _____.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 지혜.” 『구약논단』 17권 4호(통권 42집) (2011), 10-32.
- _____. “연대기로 읽는 다니엘서의 종말론.” 『구약논단』 19권 3호(통권 49집) (2013), 323-347.
- _____. “새 계시(New Revelation) 논쟁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의 형성.” 『구약논단』 25권 3호(통권 73집) (2019), 158-179.
- _____. “다니엘서의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 『구약논단』 32권 1호(통권 99집) (2026), 174-198.
-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18권 4호(통권 46집) (2012), 96-122.
- 변경옥. “야누스로서의 시편 91편: 모세의 시인이자 다윗의 시인가.”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195-230.
- 서명수. “아케다 이야기(창 22:1-19)의 재해석.” 『구약논단』 제14집 (2003), 7-25.
- 송승인. “상징/문자 결정 지표를 활용한 스가랴 14:8, 요엘 3:18, 에스겔 47:1-12에 등장하는 물의 의미에 대한 재고.” 『구약논단』 26권 1호(통권 75집) (2020), 120-147.
- 안근조. “지혜문학 연구의 제 방법론.” 『구약논단』 18권 1호(통권 43집) (2012), 34-59.
- _____. “헬레니즘 시대의 지혜의 변천: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권 3호(통권 57집) (2015), 99-124.
- _____. “잠언의 낯선 여자 경계를 통해서 본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논단』 25권 3호(통권 73집) (2019), 74-101.
- _____. “잠언의 의인화된 지혜여성: 그 수사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27권 1호(통권 79집) (2021), 131-165.
- _____. “구약성서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논단』 30권 1호(통권 91집) (2024), 166-208.

- 양인철.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 이론(Dialogism)에 기반한 사사기 4-5장 분석.” 『구약논단』 29권 1호(통권 87집) (2023), 127-151.
- _____. “트라우마 관점에서 본 예레미야 16장 해석.” 『구약논단』 29권 2호(통권 86집) (2023), 104-135.
- _____. “삼손 이야기(삿 13-16장)의 수사비평적 읽기.”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487-517.
- 엄원식. “우가릿 문학으로 조명한 에스겔서의 다니엘: 아캇(Aqhat)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집, 45-79.
- 오택현. “제2이사야에 반영된 신명기 역사의 유일신 신학.” 『구약논단』 제5집 (1998), 79-96.
- _____. “제2이사야 ‘아훼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미쉬파트 연구.” 『구약논단』 제7집 (1999), 47-62.
- 왕대일. “이사야 6장을 통해 세계 성서해석의 조류를 한눈에.” 『구약논단』 13권 3호(통권 25집) (2007), 6-8.
- _____. “시편의 신학: 시대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15권 2호(통권 32집) (2009), 10-29.
- 원진희. “사무엘상 15장의 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 47-66.
- 유연희. “아버가일의 남자들: 사무엘상 25장 다시 읽기.” 『구약논단』 16권 1호(통권 35집) (2010), 98-118.
- _____. “퀴어-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읽는 예레미야 31장.”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193-221.
-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15권 2호(통권 32집) (2009), 30-62.
- _____.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구약논단』 제11집 (2001), 71-90.
- 윤형. “잠언 8:22-31에 나타난 지혜와 창조의 역학적 관계.” 『구약논단』 26권 1호(통권 75집) (2020), 93-119.
-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의 의미: 전도서의 관점에서.”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158-186.
- 윤영준. “쉐마(신 6:4-5)와 에살핫돈의 왕위계승조약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 31-46.
- 이동수. “호세아 4:4 후반부의 본문과 번역.” 『구약논단』 제1집 (1995), 233-258.
- 이상원. “아모스서에 나타난 지진의 의미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30권 4호(통권 94집) (2024), 177-203.

- _____. “므낫세의 죄: 열왕기하 21장 1-18절의 문헌비평적 읽기.”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311-341.
- 이유미. “아가의 반전(反轉)의 신학.” 『구약논단』 20권 2호(통권 52집) (2014), 156-185.
- _____. “유용한 해석적 도구인 ‘비블리카버스’(biblicaverse) 구축을 위한 제언: ID drroma의 아가 연구 가상체험기.” 『구약논단』 28권 2호(통권 84집) (2022), 324-354.
- _____. “아가의 사랑 프레임 재구성: 프레임 의미론을 통한 은유적 인식 전환.”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187-214.
- 이윤경. “탈식민 비평으로 읽는 다니엘서.” 『구약논단』 31권 3호(통권 97집) (2025), 342-371.
- 이은애.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5권 3호(통권 73집) (2019), 217-245.
- _____. “헤벨(hebel)과 죽음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성.” 『구약논단』 30권 4호(통권 94집) (2024), 282-310.
- 이은우. “여호수아 3장 본문의 역사 연구: 마틴 노트와 로버트 폴진 이론의 비판적 고찰.” 『구약논단』 13권 4호(통권 26집) (2007), 30-52.
- _____.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 67-86.
- _____. “구약 축전의 발전 과정 연구.” 『구약논단』 17권 1호(통권 39집) (2011), 155-178.
- _____. “열왕기하 23장 13절의 역사 연구.” 『구약논단』 27권 1호(통권 79집) (2021), 192-213.
- _____. “기브온 족속 이야기의 형성사 연구(수 9:1-27).”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6집) (2022), 246-270.
- _____. “오경 문서비평의 새로운 방향 찾기: 출애굽기 13장 17절-14장 31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9권 1호(통권 87집) (2023), 244-266.
- _____. “신명기 형성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논의: 신명기 4장 1절-49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9권 2호(통권 88집) (2023), 136-162.
- _____. “할례, 유월절, 만나에 관한 해석학적 논쟁: 사본 간의 해석학적 차이인가? 편집사의 흔적인가?” 『구약논단』 31권 4호(통권 98집) (2025), 269-310.
- _____. “여호수아 22장의 형성사, 정경적 기억, 예배공동체의 정당성 논쟁.” 『구약논단』 32권 1호(통권 99집) (2026), 334-367.
- 이일례.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의 종말론적 희망.” 『구약논단』 29권 3호

- (통권 89집) (2023), 216-248.
- 이정학. “구약성서의 전통적 거대동물 모티프를 통한 인간 이해: 욕기 40-41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222-255.
- 이종록. “에스겔서의 ‘용서와 회개’의 신학과 문학 구조 연구.” 『구약논단』 제14집 (2003), 67-104.
- 이준혁. “미가서의 문학적 통일성: 시온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이중주.” 『구약논단』 31권 1호(통권 95집) (2025), 167-201.
- 이효림.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와 타국인의 제사 참여에 관한 전통사적 연구.” 『구약논단』 29권 3호(통권 89집) (2023), 249-285.
-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 18권 2호(통권 44집) (2012), 58-85.
- 임효명.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구약논단』 18권 4호(통권 46집) (2012), 38-71.
- _____. “생태 위기 시대에 성서 읽기: 스바냐의 야훼의 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22), 372-401.
- _____. “창조 기사의 땅 이야기: 불의에 저항하며 황폐해 가는 땅.” 『구약논단』 30권 4호(통권 94집) (2024), 364-395.
- 장성길. “예레미야 30-33장에 나타난 결속 구조 분석.” 『구약논단』 13권 4호(통권 26집) (2007), 92-110.
- 정대준. “사사기 19-21장의 폭력 사건 읽기.” 『구약논단』 29권 4호(통권 90집) (2023), 102-132.
- 정미혜. “예레미야서 37-39장에 나타난 시드기야의 정치 세력.” 『구약논단』 29권 4호(통권 90집) (2023), 349-379.
- _____. “사사기 19-21장에 나타난 숨겨진 정치적 논쟁.” 『구약논단』 30권 3호(통권 93집) (2024), 240-275.
- 정석규. “신명기 역사 연구와 그 전망.” 『구약논단』 제15집 (2003), 119-145.
- 정중호. “예언서와 타 종교: 이사야 19장 16-25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6권 2호(통권 36집) (2010), 53-70.
- _____. “신명기 32:1-43과 호세아서의 유사성 연구.” 『구약논단』 제1집 (1995), 91-107.
- 조명기. “4Q246과 다니엘 7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4권 3호(통권 29집) (2008), 125-144.
- 조용현. “도덕적 행위자로 기능하는 잠언의 아쉬르/부자.” 『구약논단』 25권 4호(통권 74집) (2019), 108-135.

- 차준희.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와 미가 전승.” 『구약논단』 제1집 (1995), 205-232.
- _____. “전도서 5장에 대한 신학적 읽기: 주석과 메시지.” 『구약논단』 16권 2호(통권 42집) (2010), 116-135.
- _____. “전도서 7장에 대한 전통 지혜 비판.” 『구약논단』 17권 4호(통권 44집) (2011), 57-83.
- 채은하. “지혜문학과 설교: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4권 1호 (2018), 162-188.
- 최기수. “구조주의 비평을 통한 호세아 1장 연구.” 『구약논단』 제21집 (2006), 108-124.
- 최종원. “여호수아 24장 1-13절의 전승사와 육경의 구성사적 접근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29권 4호(통권 90집) (2023), 170-200.
- 최철규. “제2이사야와 고레스 실린더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31권 2호(통권 96집) (2025), 256-278.
- 하경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28권 3호(통권 85집) (2022), 304-338.
-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권 4호(통권 58집) (2015), 264-301.
- 한규승. “‘토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공공담론: 아모스 2장 6-7절의 재해석.” 『구약논단』 22권 1호(통권 59집) (2016), 62-101.
- 한동구. “잠언의 지혜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 이념’.” 『구약논단』 17권 3호(통권 41집) (2011), 12-33.
- _____.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훼의 성전 됨(겔 8-11장).” 『구약논단』 21권 2호(통권 56집) (2015), 9-37.
- 홍성민. “에스겔 44:17-31의 사독 제사장 법의 목적과 기능.” 『구약논단』 26권 2호(통권 76집) (2020), 149-177.
- 『구약논단』 창간사 및 편집후기. 『구약논단』 제1집 (1995).
- Ahn, Yoonee. “The Long-Term Process of Hebrew Script in Light of Recent Epigraphic Discoveries: From Proto-Sinaitic Beginnings to Iron Age Standardization.” 『구약논단』 32권 1호(통권 99집) (2026), 234-262.
- Fuller, David J. “Empirical Models for the Compositional History of Habakkuk.” 『구약논단』 30권 2호(통권 92집) (2024), 238-266.
- Sweeney, Marvin. “Unfinished Tasks in the Book of Isaiah.” 『구약논단』 18권 1호(통권 43집) (2012), 206-221.

2. 기타 단행본 및 일반 논문

- 왕대일.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진단과 전망.” 『신학연구 50년』. 서울: 헤안, 2003, 47-92.
- 이형원. “Trends in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and Proposals for the Futur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7 (2008), 5-24.
- 한동구. “한국 구약학의 회고와 전망(1): 연구 방법론과 오경.”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0 (2007), 5-48.
- Barton, John.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 in Biblical Study*. Rev.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 Bourdieu, Pierre. *Homo Academicu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 Brueggemann, Walt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1997.
- Moody, Dwight L. “Scholarly Journals and the Shaping of Academic Disciplines.”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21 (2005), 23-38.
- von Rad, Gerhar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ew York: Harper & Row, 1962.

검색어

「구약논단」, 한국 구약학, 성서학 학문사, 방법론 발전사, 융합적 해석학

[ABSTRA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KJOTS): A Historiographical Reconstruction of Korean Old Testament Scholarship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Issue

Eun-Woo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undertakes a comprehensive historiographical reconstruction of Korean Old Testament scholarship over the past three decades by analyzing the entire corpu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KJOTS) from its inaugural issue (1995) to issue 99 (2026). Commemorating the publication of the 100th issue, the study examines KJOTS not merely as a repository of scholarly articles but as a critical intellectual space that has reflect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fessionalization, and hermeneutical transformation of Korean Old Testament scholarship.

Employing a dual analy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quantitative survey and qualitative interpretation,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articles according to (1) biblical categories — the Pentateuch, Historical Books, Writings, and Prophets — and (2)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historical, source, form, redaction, literary, canonical, social-scientific, and feminist criticism, as well as Ancient Near Eastern comparative studies, ecological criticism, and digital and AI hermeneutics. The thirty-year trajectory of KJOTS is further periodized into four developmental phases:

www.kci.go.kr

the Formative Period (Issues 1-10, 1995-2000), the Growth Period (Issues 11-30, 2001-2009), the Transitional Period (Issues 31-60, 2010-2018), and the Expansion Period (Issues 61-99, 2019-2026).

The analysis reveals that Korean Old Testament scholarship has evolved from a reception-oriented stage dominated by German historical criticism toward an increasingly autonomous hermeneutical tradition that engages Korean historical experience, ecclesial realities, and global crise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matic shifts — from textual formation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toward memory, identity, trauma, gender, ecology, empire, and digital culture — as well as to the emergence of convergent methodologies that integrate philological rigor with contemporary hermeneutical concerns.

The study further identifies both the academic contribution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KJOTS, including its function as a “methodological laboratory,” its limited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scholarship, and the relatively modest representation of Hebrew linguistics, textual criticism, and Septuagint studies. Looking forward, the study proposes five strategic agendas for the next era of Korean Old Testament scholarship: (1) the developmen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the AI era, (2)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3)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xt criticism and data-driven biblical studies, (4) the deepening engagement between Korean public theology and Old Testament scholarship, and (5)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KJOT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DOI and ORCID systems, the expansion of English-language publications, and integration into international indexing databases such as Scopus and A&HCI.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100th issue of KJOTS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mere commemorative milestone but as a symbolic turning point that inaugurates a new era of internationalization,

convergence, and creative expansion in Korean Old Testament scholarship. The history of KJOTS, therefore, constitutes not simply a chronological archive but a living intellectual heritage that illuminates the future trajectory of biblical scholarship in Korea and East Asia.

key words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KJOTS),
Korean Old Testament Scholarship, Historiography of Biblical Studies,
Methodological Development, Convergent Hermeneutics

투고일 : 2026년 05월 25일

심사일 : 2026년 05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05월 30일

www.kci.go.kr